

# 아시아의 진보 사상가들 - 우노 고조

○ ○

[아시아의 진보 사상가들](4) '자본론' 순화 3단계 경제학 체계 세운 우노 고조

경향신문 | 김성구 | 2012. 09. 23. 21:08

일본 반정통파 마르크스 경제학의 거장

일본 마르크스주의의 역사는 유럽, 특히 독일로부터 수입을 통해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은 아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가장 오래된 국가이며 수준 또한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엔겔스 전집도 1927~1933년에 세계 최초로 간행됐다. 일본 대학의 경제학자 중 절반은 마르크스주의에 속한다. 경제학회도 이론경제학회(현 일본경제학회)와 경제이론학회(마르크스주의 경제학회)로 양분돼 있다. 경제이론학회 회원은 1970년대 말 무려 1000명이 넘었고, 2008년에도 950명에 이른다. 경제학부에서는 대개 부르주아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두 개 강좌를 모두 개설한다.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일본처럼 마르크스주의가 대학에서 제도화된 국가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물론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후 대학 사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 같은 일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역사에서 누구보다 주목할 인물은 단연 우노 고조(宇野弘藏·1897~1977·사진)다. 우노학파는 경제이론학회 회원의 5분의 1을 점한다. 우노 경제학이 형성되는 역사적 계기는 일본자본주의 논쟁이었다. 전전의 일본자본주의 논쟁을 계기로 하여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강좌파와 노농파로 양분되었고, 전후에는 강좌파와 우노학파의 대립으로 특징지어진다. 강좌파와 노농파는 일본자본주의 논쟁에서는 대립하였지만, 여타 마르크스주의 기초이론에서 특별한 차이는 없다. 전후 이 논쟁이 소멸하자 이번에는 우노학파와 강좌파 간의 논쟁이 전후 일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주도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진행된 일본자본주의 논쟁에서 <일본자본주의발달사 강좌> (전7권·1932~33)로 대표되는 강좌파는 1868년 이래의 메이지유신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봉건적 또는 반봉건적 관계가 존속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절대주의 천황제를 타도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이 당면한 과제라며 2단계 혁명노선을 제출했다. 정치적으로 보면 코민테른의 정치방침과 이를 추수하는 일본공산당의 입장 즉 정통파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반면 잡지 '노농'을 중심으로 한 노농파는 메이지유신이 부르주아 혁명이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당면한 과제로 제시했다. 일본공산당의 노선에 반대하는 노농파의 1단계 혁명노선은 전후 일본사회당의 좌파로 계승됐다.

우노는 이 논쟁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노농파 동조교수로 간주되어 노농파 교수그룹 사건으로 검거됐고, 도호쿠대학에서 축출됐다. 그러나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러했지만, 우노도 전후에 대학에 복귀하여(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독자적인 마르크스 경제학 체계를 구축하였다. 1950년 <경제원론>, 1954년 <경제정책론>의 출간으로 우노의 이른바 원리론-단계론-현상분석의 3단계 경제학체계가 완성됐다. 우노는 <자본론>을 순수자본주의 사회의 원리론으로 재구성했는데, 원리론이란 자본가·노동자·토지소유자로만 구성되는 순수자본주의 사회를 대상으로 그 운동법칙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순화된 <자본론>은 현실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원리적 기준이지만 직접 현실자본주의를 분석할 수는 없다. 현실자본주의는 발전 속에서 불순화 경향(전자본주의적 관계들)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불순화 경향을 이론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단계론의 매개가 필요하다. 단계론은 자본주의의 세계사적 발전단계에서의 주도적 국가를 전형으로 해서 유형론적으로 구성되며, 레닌의 <제국주의>도 이에 따라 재구성됐다. 이렇게 원리론과 단계론의 기준과 매개를 통해 비로소 현실자본주의의 구체적 분석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강좌파나 노농파는 일본자본주의 논쟁에서 모두 <자본론>으로부터 직접 일본자본주의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오류를 범한 것이었다.

우노는 이 경제학 체계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당파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사실과 논리에 입각한 사회과학으로서 구성하고자 했다. 그래서 <자본론>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논할 수 없는, 원리론의 체계로 순화됐다. 우노의 3단계 경제학체계와 방법론은 당연히 미타 세키스케(見田石介) 등 정통파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논쟁이 촉발됐다. 정통파는 <자본론>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생과 발전 그리고 사멸의 법칙을 해명하는 것이며 단계론의 이론적 토대도 <자본론>에 있다고 했다. 또한 우노의 원리론은 현실자본주의와 무관하게 구성되어서 단계론의 기준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노는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만 '마르크스 경제학'이 교조주의와 당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노학파가 일본사회당에 친화적이지만 현실의 좌파정치와 거리를 두었던 것도 이런 과학적 관점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부터 우노학파가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본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변창과 좌파정치의 퇴조와 몰락이라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현 상태는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추수하는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의 오류만이 아니라 우노학파의 '순결한' 마르크스 경제학과 비정치적 태도에도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을 것이다.

<김성구 | 한신대 교수·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소장>